

고은 불교대하소설

고 백

사

내게는 소식쟁자가 작은 술에다 끓인 마음이나 죽을 먹고 차츰 몸을 회복해갔다.

아마도 바다안개에 갇혀있는 동안 정신이 이상해진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 나라에서 엄금하고 있는 개성 삼포(參包)의 잠상노릇을 하는 도중 그의 뒤를 보아주던 포교가 그의 부하를 끌어 그를 처치하도록 했을 때 그 죽을 고비를

인담은 그런 사내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인지 그에게 자주 와보지 않고 평소의 입정(入定)시간을 거의 뺄감을 마련하는데 쓰고 있었다.

섬의 위쪽 숲으로 들어가서 소나무 가지들 쳐내어 그것을 한 다발씩 묶었다. 소나무 가지에서 나는 송진 냄새가 좋았다. 입산부는 그런 냄새에 실한 구역을 할지 모를 만큼 그것은 아주 진한 것이었다. 배구기는 하루내내 거의 쉬지 않고 숲의 우동지 어디에 앉아서 멀리 바다를 보고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바다안개로 온 세상이 천막으로 가려진 것처럼 막막할 때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는 울음소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말하자면 인담은 그런 배구기와 함께 있는 동안 썩다른 행복을 누리는 터였다.

사람보다 새나 다람쥐 따위의 잔 짐승이 훨씬 흥을 때가 있었다. 사람이 귀한 이 섬에서의 인담에게 사람이 귀한 상태나 사람이 없는 고독의 상태에 익숙한 나머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 것인 지도 모른다.

사람보다 저런 잔 짐승들이 더 부처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여기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아무런 수승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고 저 스스로 도를 깨치는 일종의 자연오도(自然悟道)와 친진남한(親近南韓)까지한 잔 짐승의 그 쉬지 않고 움직이는 어여름이 하나이기를 바라는 인담의 뜻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나뭇단 9개나 10개가 되면 그것을 지게에 지고 두어번 내려오면 되었다. 오늘은 이 일을 해야겠다는 작심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득 지게를 지고 싶었고 나무가지들 솎아내고 싶어서 그런 별간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무가지가 숲을 죽이



나 산동지방 포구까지 건너난 잠상이 아니었다. 그런 잠상이라면 바다 밑의 용왕도 마을의 조상신도 산중의 부처님도 믿을 마음이 없는 천동발거승(天東拔去僧)에 더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사내는 거칠기 짝이 없는 수평발을 바다안개에 적신 나뭇지단인 인담의 외연한 무심(無心)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였다.

그러자니 그는 그 자신의 지난 날을 다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다.

"본디 저는 저 서북 땅 용암포 갯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 열세살때 흥경래군에 나아가 박천싸움에서 패퇴할 때에도 살아났습니다."

"가슴팍의 흉터도 그때의 것이겠습니까."

리소리가 저 아래 관군 아전의 군막 언저리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정주성인의 흥경래군에 한 가득 감상을 불러 일으켜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임에 틀림없었다.

바로 그런 피리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성벽 아래에서 밧줄을 던져 숨죽이고 올라오는 관군 특공대가 있었던 것이다.

사내와의 교대를 위해서 잡이 달 갯 채 어둠속을 걸어오던 병사가 갑자기 입이 틀어막히며 등쪽에 칼이 꽂힌 것이었다. "아악!" 하는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았다. 사내는 오싹하는 전율과 함께 그가 서있던 곳에서 몸을 날렸다.

"관군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세사람의 특공대가

"저는 서북땅 용암포 갯가서 태어나 열세살에 흥경래군에 기담했지요 겨우 목숨을 부지해 중강으로 가다..."

"네, 가슴팍은 그렇고 열구리는 청나라 포구에서 그곳 패거리한테 칼을 맞은 자국입니다."

사내의 나이는 51세이다. 그런데도 훨씬 늙어 보이는가 하면 말에 침점 힘이 더해지는 것으로 보면 훨씬 아래인 것 같기도 하였다.

인담도 차츰 궁극하였다.

"경안도 8군이 다 흥경군 수중에 들어 있을 때만 하여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벅찬 기쁨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웬만한 싸움 따위에서 관군 한두명쯤 청나라 조총으로 쏘아버리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

"그러다가 박천 송림골 싸움에서 지고

다 생포되기는 했으나 성안의 병사들이 다섯명이나 죽어야 하는 손실이 있었다.

사내에게 그를 관군 특공대 사람의 목을 지르는 일이 맡겨졌다. 그는 그 망나니 역할을 거부할 수 없었다.

청나라의 독한 술을 마신 뒤 세사람의 목을 날렸다.

그것을 끌로 매달아 성벽 아래로 드리워 놓았다.

하지만 다음날 정주성은 함락되고 만 것이다. 사내는 성문을 막는 임무를 포기하게 되자 그 성문으로 밀려드는 관군에 짓밟힌 채 얼드러진 모양으로 죽어있었다.

한참 뒤 그는 죽음을 깨어나게 되었고 영급영급 기어나가 성문 밖의 성벽 밑 창에 기대고 있었다. 성안의 해자가 오렌

"이 세상 누구도 난세를 사노라면 풍운을 만나야 하겠지요"

간신히 피하여 다쳤던 머리의 부상 때문에 진작 이상해진 것인가.

섬에서의 안정은 그의 지난 날을 지나치게 선명하게 떠올려주는 기억력도 불과 함께 회복되었다.

미치 처음에는 포도청이라도 잡혀온 것처럼 겁에 질려 머리부터 고백하듯이 상감비자가 세상을 떠났다던가, 그 자신은 개성의 밀매업자라던가 하고 횡설수설이 었거나 이제는 그런 말투도 한결 담담해진 것이다.

그는 인담 앞에서만 입을 열기 일쑤였다. 우너나 소식에게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비굴하기조차한 인사도 몸의 동직으로만 하였다.

인담은 그를 구조한 직후 몇마디 말을 내뱉고 기절한 상태였을때 그의 가슴 윗부분과 갈비뼈 부위에 굵은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어떤 목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다.

그가 몸을 회복하기를 거의 7일이나 걸린 것은 그만큼 그가 늙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 않았다가 그것을 차곡차곡 묶어두면 어느새 묶은 것이 아주 알찬 나뭇단이 된다. 그 진한 송진 냄새에 실컷 뽀뽀 냄새를 맡아주면 하루하루가 지나는 동안 그것은 아주 착실하게 말라가는 것이었다.

송진냄새는 바람이 걸어가버리니 나무 가지에 달린 푸른 침엽(針葉)들은 어느새 흐린 주황빛을 띠거나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그 나무단을 풀어 아궁이에서 태울 때는 다시 한번 지난 날의 송진냄새를 일컷 풍겨주기도 한다.

아무튼 인담은 이런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면서 지난 날 이 섬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번뇌하고 공부하고 있는가 하고 떠올리기 심상이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이 어느덧 다른 세상에 태어난 지도 모르고 지옥의 수고를 연민하기도 하였다.

천 상계에 올라간 사람이나 어디에 가있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인담의 직박하기까지 한 심상 가운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었다. 아니 인담 자신도 이 무욕도에서 떠나, 이 세상에서 떠나 다른 세상의 먼 길을 가고 있는 장차의 자신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그런 인담이어서 사내한테 슬쩍 둘러보니 사내는 몹시 그에게 반색하는 것이었다.

"이제 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육지로 보내시렵니까?"

인담은 이 말투가 생략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좀 관망하겠소?"

"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이 집안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건 그렇거니와 행수(行首)께서

육지로 가실 뜻이라면 건너다 드리겠소. 만약 이런 심심한 곳에서라도 살 생각이시라면 우리가 식구 하나 늘었다고 반가워할 일이지요."

행수(行首)라는 사내를 행수라는 상인(商人)들 사이의 일정한 위치로 놓이는 것도 꼭뚫한 말투도 인담에게는 드문 노릇이었다.

사내가 말하였다.

"소인의 내핵에 풍운이 제법 들어 있습니다."

인담이 따뜻하게 그 말에 대꾸하였다.

"이 세상의 누구도 난세를 살아가는 동안 풍운을 만나야 하겠지요... 행수께서는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요?"

이 섬에는 마치 그들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호의지의 정서가 사내에게 휘감겼다. 그는 인담에게 한없이 기대고 싶기까지 하였다.

이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청나라 요동이

관산 장대 앞에서 크게 진 뒤부터 우리 진영은 흩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흩어졌다기보다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

"드디어 흥경군에서 유탄에 맞아 쓰러지셨습니다."

인담은 비유동굴에 앉아 있던 공둥이를 들고 일어났다. 사내의 말을 끊은 셈이었다.

"자, 가서 한술 떠 넣읍시다. 오늘은 이만 하고..."

말이 한참 흥겨워진 사내로서는 갑자기 쫓고 가던 지팡이라도 부러진 느낌으로 터무니가 없어졌다.

하지만 그는 마음 속에서 하던 말을 저 혼자 계속하였다. 그 말을 인담이 들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었다.

그는 정주성 안에서 성벽 아변(改番)이 되어 지키고 있었다. 밤새도록 처량한 피

새월 매워져서 거기에 풀심이 우겨져 있었다. 바로 거기에 숨어서 남아있는 가쁜 숨에 목숨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면 그의 위에 바로 어찌 그가 칼로 찔러 관군의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사내는 놀랐다. 그 놀라움이 힘이 되어 그곳을 정처없이 떠났다.

그렇게 해서 무작정 중강(中江)쪽으로 향하여 가거나 절벽거리거나 하면서 갔다. 중강이나 강계에는 청나라 잠상이 있고 청나라 병사들이 이따금 조선땅에 건너와 여자를 납치하거나 물건들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잘못 알아서 압록강 하류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조항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원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구어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불교관련용품
- 지체복
- 각종행사
- 개인일지
- 불교관련도서
- 인사내
- 신상물수첩

문의 (02)737-8881 (광고국) 팩스 (02)737-0697

모범업소(오랜전통)

동궁 결혼 연구원

초혼·재혼

저희 업소는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소장 金銀子 학장
문의전화: 745-3006

사찰안내

절(포교당)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당 : 25평 전세 : 3300만원
연락처 (032) 656-7523

포교당 안내

소재 : 중정동 망우동
2층 30평 방3개 대로변
보증금 :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 900만원
☎ 496-1542
호출기 012-759-5062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사계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트글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포동 B/D (율지로 27)
전화: (02)266-2629
팩스: (02)266-2679

척추교정·지압 시술 및 개인지도

(CHIROPRACTIC)

- 척추교정/척추추출/척추교정
- 목·허리디스크·신경통
- 관절염·중풍·뇌졸중
- 척추관 협착·척추관협착
- 운동요령·건강·자립
- 시술도·병행

장성수
건강연구원
일구정역
543-7306

기도·회향 보시 방법지도

지장경독승법법

합회·업정소설과 자녀교육에 도움
가족법회, 건강문제
꿈비워사회교육문제연구소
종로구 인사동 179-2
(02)739-5007-8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소재: 경기도 용인
시설명: 광재사
1, 40-50대 보살님으로 사찰에서 함께 하실 분을 모십니다.
연락처 : 0335) 34-0664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함, 염주 | 일체 품목 |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 778-5345, 팩스: 777-1917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불사업적: 대웅전, 법당, 경당
- 불사업적: 대웅전, 법당, 경당
- 불사업적: 대웅전, 법당, 경당
- 불사업적: 대웅전, 법당, 경당
- 불사업적: 대웅전, 법당, 경당
- 불사업적: 대웅전, 법당, 경당
- 불사업적: 대웅전, 법당, 경당
- 불사업적: 대웅전, 법당, 경당

대진(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지. 팩 02-248-4909
공. 팩 0346-571-9538
호. 팩 012-210-1401
趙貞玉 학장

권 대승생활불교강좌 권 제5기 개강 : 7월25일

1. 불교학 기본교리, 불교건강
•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
2. 예불의식과 재불공 49재구병시식등
• 매주 목, 금요일 저녁 6시 ~
3. 풍수지리학, 주택 건물 감정, 묘지쓰는법
5운6기 명리학 평색궁합, 운세 길흉법

■ 접수문의: 대표전화 (02) 523-0241, 마산분교 (0551) 52-4259

대한불교 대승종 대승생활불교대학

- 매주 목, 금요일 저녁 7시 ~
- 연구반, 고급반, 매주 화 수 저녁 7시 ~
- ◇ 강좌시간 : 각반 각 3개월, 선학순 30명
- ◇ 수강대상 : 불교지도자로 활동하실 분, 스님, 대학생, 전공하실분
- ◇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552-10 (서초역 ~2분)
- 구변호사회관뒤 ~ 흥부네슈퍼 ~ 소니(sony앞)